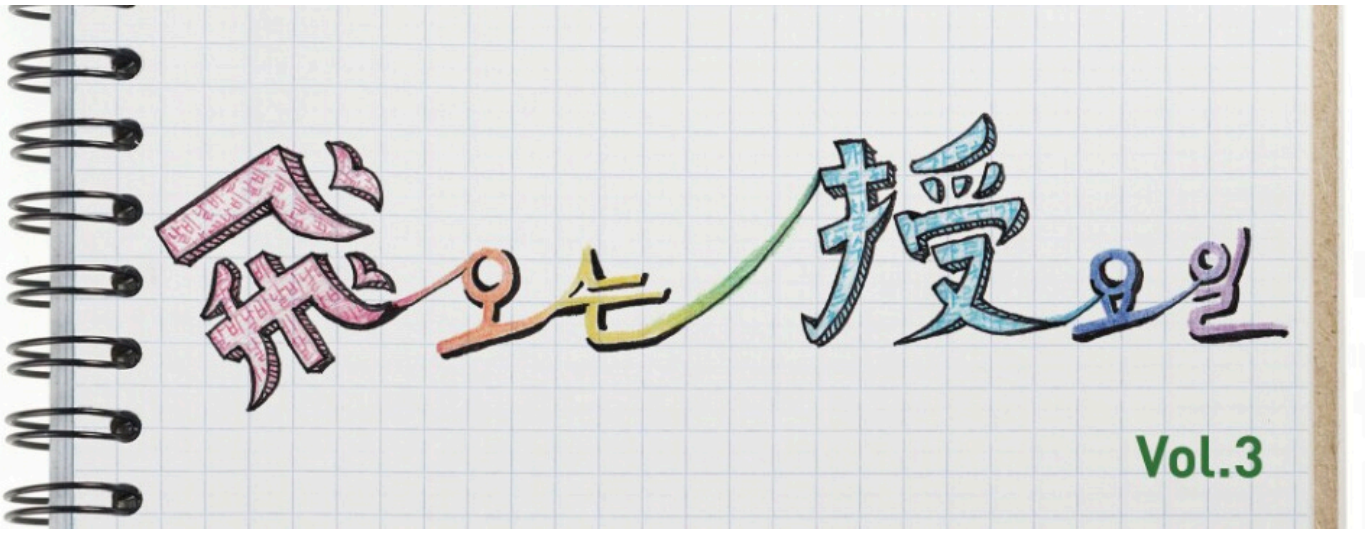

서른두번째 이야기

『2018 사역자 / 훈련 사역자 임명』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사역자

넘치는 기쁨으로 [이정분 집사]

2005년 온누리 교회 JDS 훈련을 마치면서 소개받은 BEE는 성경공부로써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듬해 온비아 과정에 등록하였다. 이성애 권사님의 갈라디아서 세미나는 복음의 자유함에 눈뜨게 하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러나 가정의 큰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라고 갈등하였다. 하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에서 '복음'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인해 주저 없이 온비아 과정을 재수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났다. 그리고 생각했다.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인도자들이 없었다면 복음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었을까?

FTS 과정을 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하고 또 사역자 임명을 받으면서, 더 알면 알수록 책임을 더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이 생긴다. 이번 로마서 세미나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 주님이 학생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학생들에게는 지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한다. 세미나를 인도하면 넘치는 기쁨이 있다. 매 세미나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BEE사역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가고 싶다.

비싼 것이 좋은 것이다! [장선규 집사]

2014년 말씀공부를 하고 싶던 차에 온비아 갈라디아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OBC와 온비아의 차이를 모르던 그때는 그저 '비싼 것이 좋은 것이겠거니'하는 마음에 온비아를 신청했으나 잦은 토론과 발표로 인해 후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주목 받고 발표하는 것을 싫어하던 저에게는 한 주 한 주가 불편한 시간이었지만, 온비아 과정은 BEE 세미나의 은혜와 감동을 맛보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시 비싼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어느 누구의 권유나 조언보다도 더 강력하게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와 감동은 저에겐 큰 기쁨이 되었고, 어느 새 월요일 저녁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FTS로의 초대는 제 신앙생활 중에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이, 그저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으로 FTS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큰 기쁨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말씀사역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BEE모임에서 여러 세미나의 내용도 은혜였지만, 배울 점이 많은 인도자님들을 만난 것도 은혜였습니다.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세심하고, 인격적인 인도자님들을 만나며, 그 성품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BEE라는 건강한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자라가길 기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장원규 집사]

일상에서 한 여인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면서 평신도 말씀사역자의 길을 찾던 중에 여러 사람들로부터 BEE를 소개받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학기에 아내와 함께 갈라디아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BEE를 시작하였습니다. 세미나 속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후에 개설되는 세미나에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말부터 FTS 훈련을 받았고, 2016년 말에는 훈련 사역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몇 번의 세미나를 FA와 FT로서 섬긴 후 2018년 말에 사역자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임명을 받는 것이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사역임을 기억하고,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일생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2018 사역자 임명**

박승선 이정분 장선규 정세화
이경주 이창선 장원규 한정아

▶ 훈련사역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윤재아 집사]

온누리 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결혼 후에 예배만 드리다가 2005년~2014년 남편의 사업 확장으로 중국 항주, 상해에서 생활하며 2013년 등록해 말씀 훈련을 받았습니다.

겨울 방학 때 귀국해서 만나는 언니(BEE 숙제를 머리 싸매며 열심히 함)의 소개로 BEE를 시작하였습니다. 질문과 답을 찾아보느라 교재를 좀 읽어 보니 신학교 수준의 성경지식과 역사, 지리를 망라해 성경과 삶을 바라보게 하는 심도 있는 내용에 놀랐습니다. 또 상해에서 제게 영적으로 큰 도전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BSF(Bible Study Fellowship) international-복음서 한 권을 1년 동안 전방위적으로 공부하며, 상해에 주재하는 여러 나라 자매들과 함께 삶에 적용한 것을 나누는 성경공부를 연결해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다 BEE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에서 시작된 BEE 성경공부는 귀국 후 제 삶을 말씀과 묵상, 적용에 단단히 뿌리 박히도록 도와 주었고, 귀국 전후로 다소 혼란스럽고 부산했을 아이들 양육과 남편의 귀국 후 안정 등 여러 일상사를 말씀과 기도로 바라보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역동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훈련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즐거운 과정만은 아니었습니다. 건강과 일, 인생 후반전 준비 등 여러 난관을 정리하며 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방위적 공격(?)도 잘 이겨내야 했었습니다. 훈련 중간 중간마다 '나에게 BEE란 무엇인가?'라고 계속 되물으면서, 때론 손을 놓아보자 했다가 다시금 교재를 읽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께서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더 훌륭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겠지만 이미 시작된 훈련과정에서 육체의 소욕을 절제(토요 새벽 잠, 우선순위 등등)하며 그 여정을 열심히 따라 가보려 합니다. 아직 말씀 사역자로 준비하는 과정이라 갈 길이 멀지만 겸손하게, 여일하게, 기쁨으로 가보렵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 맛보는 하나님의 기쁨! [최 선]

온누리 대학청년부 W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결혼 이후 부천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를 출석하면서 BEE를 만나고,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그룹, 선교그룹 등에서 순장, 회계, MC 등 분주한 사역을 하며 지쳐있었을 때 BEE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부의 끊임없는 폭풍과도 같았던 사역 가운데 BEE를 만나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은 꿀송이와 같이 단 시간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인도자님들의 세미나를 수강하면서 평신도 사역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아직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감사하게도 인도자 훈련과정과 FA로 섬기며 평신도로서 말씀 사역을 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열심히 준비하여 언젠가는 해외에서 말씀에 갈급한 지체들을 만나 세미나를 하는 날도 꿈꾸어 봅니다.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 중인데, 연약한 아이들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부모님들과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참여하며 [정주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대단한 헌신과 인내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제리 브릿지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중에서)

온비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0회 정도의 세미나와 강습회를 했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세미나를 공부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이 많아지면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고, 견고한 믿음이 생겨 고난을 넉넉히 이기길 바랐으나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7과 '복음이 삶의 시험을 이기게 한다'에서 '주님 이거 사실이죠?' 몇 번이나 물어보았던 것 같습니다. FTS를 하면서 온비아 수강생 시절 수많은 질문으

로 인도자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죄송했습니다. FT로 세미나를 인도할 때는 청강생의 질문에 답변하느라 결국 시간 조절에 실패하고 학습계획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까지 추천 받아 설 수 있는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은혜이었습니다. 이제 다 알 수 없어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참여시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BBK에서 본 영상'다른 한 짝'에서처럼 두 가지 기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18 훈련 사역자 임명**

윤재아 이용구 최 선
이승혜 정주영 홍병현

BEE의 보석 찾기

16. 이혜리 집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던 시어머님께서 천국으로 떠나시고 그 해 봄 BEE FTS 과정에 남편과 함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알맞은 시간에 우리 부부를 BEE 사역에 부르신 것 같다. 처음에는 BEE를 통해 받은 말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였지만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생' 인도를 통해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다. 특히 남편과 팀 티칭을 하면서 남편에 대해 더 잘 알게 하시고 부부관계를 더욱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셨다.

현재 남편과 함께 수원캠퍼스 4부 성가대와 일대일 사역을 섬기며 수원 캠퍼스에 온비야가 더욱 튼튼히 뿌리 내리길 기도하고 있다. 가족은 남편과 대학생인 두 딸이 있다.

17. BEE보석을 찾아요~

***다음 주 보석 찾기는 누구일까요?**

육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집사님. BEE 새벽기도 모임에 기타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인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찬양하며 땀을 흘리시는 모습에 감동!! 하나님께 '복종'하며 '순종'하시는 분입니다.ㅎㅎ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BBK 소식

2.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과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딤전2:1) BEE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요!

- '그리스도인 공동체(BEE KOREA의 구성원), 복음에 충실한 공동체(사명을 위한 덕목), 사역의 확대와 확장(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 신실하고 충성된 사역(서로를 위한 격려와 다짐)'을 위해!

3.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골1:3)

1) 2019 베트남 아웃리치 : 2019. 01. 14(월) - 20(일), 하노이/하이퐁, BEE훈련센터 방문 및 수업 참관, 소요예산 100만원

2) 2019 케냐 아웃리치 : 2019. 02. 01(금) - 09(일), 나이로비/이텐/음발레/키스무 외, BEE 졸업식 참관, 소요예산 200만원

4. BEE WORLD CONFERENCE : 2019.10.02-09, 오스트리아 비엔나!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BEE WORLD**! BEE WORLD 총재이신 총재이신 **Dave Semmelbeck** 선교사님께서 친히 BEE KOREA를 초대해주심을 감사하며 설렘과 기도로 준비해요. 우리!

5. 하늘에는 영광 , 땅에는 평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가족에게,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